

광주 FC-홈팬, 뜨거운 재회... 전용구장 첫 승은 내년에



선수들, 홈 폐막전 창단 10주년 유니폼 입고 그라운드 누벼
펠리페·엄원상·김정환, 공격 루트 막혀 상주에 0-1 패
박진섭 감독 "마지막까지 최선"...내달 1일 울산과 최종전

광주FC가 안방에서 팬들과 재회·작별 순간을 동시에 맞았다.
광주는 2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상주상무를 상대로 2020 K리그1 26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지난 13일 관중석이 재개방된 뒤 처음으로 홈경기가 열리면서 기다렸던 팬들과의 재회가 이뤄졌다. 하지만 광주에서의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만큼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다.
광주는 다시 만난 홈팬들 앞에서 올 시즌 2패만 기록한 상주전 설욕과 전용구장 첫승이라는 목표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0-1 아쉬운 패배였다.
'홈폐막전'을 맞아 광주선수들은 홈팬들이 직접 선택한 창단 10주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올랐다.
탐색전 끝에 김정환과 엄원상이 스피드 장점을 살려 상무 진영에 침투하며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21분 김정환이 펠리페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유효슈팅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반 중반 이후 분위기는 상주가 주도했

후반 초반에는 광주가 분위기를 주도했다.
후반 8분 박준희와 이요뜸이 연달아 슈팅을 날리면서 상주 수비진을 흔들었다.
박진섭 감독은 후반 11분 김정환을 빼고 김주공을 투입하며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다. 하지만 선제골 주인공 박동진이 빠르게 질주해 슈팅까지 날리면서 광주를 긴장시켰다. 이후 두 팀은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후반 23분 홍준호가 큰 키를 활용해 헤더를 시도했고, 시즌 두 번째 경기에 나선 박준희도 후반 29분 적극적인 공격 가담에 나서 왼발 슈팅까지 선보였다. 왼발의 달인 이요뜸은 후반 34분 프리킥 상황에서 골대를 바로 겨냥했다. 골키퍼의 좋은 수비에 이요뜸의 슈팅이 막히면서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광주는 후반 31분 박준희를 대신해 여봉훈을 투

입하며 마지막 공세에 나섰지만 끝내 상주의 골대를 열지 못하면서 전용구장 첫 승을 내년 시즌으로 미루게 됐다.
박진섭 감독은 "홈에서 마지막 경기였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승리로 마무리했으면 더 좋은 시간이 됐을 것인데 그게 아쉽다"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내달 1일 오후 3시 울산현대와 시즌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박 감독은 "그동안 준비를 잘해왔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다. 마지막 울산전도 훈련을 하면서 컨디션 좋은 선수들로 구성하겠다"며 "올 시즌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팬들 덕분에 좋은 성적냈다. 시즌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격려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팀, 경기력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개팀 선착' 광일리그, 드러나는 8강

무등기 3주차...청운에너지·담양로얄즈·풀카운트·썬더스·삼진

무등기 광일리그 우승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
지역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인 제10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3주차 경기가 지난 24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렸다.
1·2주차 경기를 통해 무등리그 8강 팀이 결정됐고, 이번에는 광일리그 8강 티켓 5장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청운에너지가 가관승으로 8강에 진출했고 이어 담양로얄즈, 풀카운트, 썬더스, (주)삼진이 16강전 승자가 됐다.
1회부터 3점을 만들며 기선 제압에 나선 담양로얄즈는 3회 대거 9점을 뽑아내면서 레이니즘을 상대로 19-6, 4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선발 김규환이 3이닝 3실점으로 초반 싸움을 이끌어냈고, 8번을 맡은 채현도가 3차례 홈

들어오면서 3득점을 기록했다.
레이니즘은 7개의 실책을 남발하는 등 불안한 수비에 발목 잡혔다.
풀카운트도 1이닝 9득점의 폭발력을 과시하면서 송원블루제이스를 17-6, 5회 콜드승으로 꺾었다. 4이닝을 3실점으로 막은 선발 양상열이 4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톱타자 서현민은 5회 2타점 그라운드 홈런을 장식했다. 서현민은 7번 타자 서인철과 '부자(父子)' 활약을 선보였다.
썬더스는 패밀리를 상대로 18-5 역전승을 거뒀다.
1회초 선발 신상준이 0.1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지만, 안중훈이 소방수로 나서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안중훈은 8개의 탈삼진도 기록하면서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안중훈의 호투로 분위기를

바꾼 썬더스는 2회 13점을 폭발하면서 역전승을 기록했다.
(주)삼진은 TEAM JUN FIT와의 대결에서 1점 차 4회 시간제한 승에 성공했다.
(주)삼진이 1회말 수비에서 4실점을 했지만 2회초 공격에서 바로 8점을 뽑으며 8-4를 만들었다. TEAM JUN FIT도 2회말 4점을 뽑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등 두 팀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TEAM JUN FIT에게는 수비와 시간이 아쉬웠다. 7개의 실책으로 점수가 쏠리고, 또 시간 제한으로 4회에서 경기가 끝나면서 8강 티켓이 (주)삼진에게 넘어갔다.
광주일보사·전남문화가 주최하는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는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대회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3주차 전적(광일리그 16강)

- ◆1경기(기관승)
오합지졸 0000000-0
청운에너지 1111111-7
◆2경기(4회 콜드게임)
담양로얄즈 3295-19
레이니즘 1113-6

- ▲승리투수 : 심규환 ▲수훈선수 : 채현도 (3득점 1도루)
- ◆3경기(5회 콜드게임)
풀카운트 21059-17
송원블루제이스 00033-6
▲승리투수 : 양상열 ▲홈런 : 서현민 (5회 그라운드 홈런·풀카운트)
- ◆4경기(4회 콜드게임)

- 패밀리 5000-5
썬더스 3132-18
▲승리투수 : 신상준 ▲수훈선수 : 안중훈 (3.2이닝 무실점 1피안타 8탈삼진)
- ◆5경기(4회 시간제한)
(주)삼진 0812-11
TEAM JUN FIT 4402-10
▲승리투수 : 오중선



가을잔치 못가도 챔필은 뜨거웠네

주말 KIA-삼성전 올 최다 관중 터커·나지완 홈런에 환호
나지완, 76번째 2루타 200개 가족들도 경기장 찾아 '의미'



'호랑이 군단'의 순위 싸움은 끝났지만 2020시즌은 아직 진행형이다.
KIA는 지난 23일 LG와의 경기에서 4-8 역전패를 당하며 5강 싸움에서 탈락했다.
KIA의 '가을잔치'는 끝났지만, 관중석은 여전히 뜨겁다. 삼성과의 경기가 열린 지난 24일 챔피언스필드에는 올 시즌 가장 많은 2300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이날 경기도 7-11 역전패로 끝났지만,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팬이 끝까지 관중석을 지키며 그들만의 '잔치'를 즐겼다.
패배 속에서도 팬들을 웃게 한 장면도 있었다. 3회 선제 투런포를 기록한 터커는 5회 타석에서도 우측 담장을 넘겨 팬들을 환호하게 했다. 나지완도 2개의 사사구와 2루타, 홈런을 기록하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나지완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날이었다.
지난해 3월 얻은 첫 아들이 이날 처음 아빠의 야구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것이다.
나지완은 4-6으로 뒤진 3회 1사에서 우측 펜스 맞은 타구로 2루까지 향했다. 이 순간 나지완의 200개 2루타 기록(통산 76번째)이 작성됐다.
9회에는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한방'도



나지완
나렸다.
불펜의 난조로 5-11로 벌어진 9회말, 1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나지완은 삼성 양창섭의 2구째 슬라이더를 좌중간으로 넘겼다.
끝까지 관중석을 지키던 KIA 팬들은 나지완의 홈런 덕에 패배의 아쉬움을 달래며, 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
이 '한방'은 10월 24일에 기록된 나지완의 두 번째 홈런이기도 하다. 나지완은 2009년 같은 날에도 홈런을 날린 적이 있다. 2009년 시즌의 마침표를 찍고, 타이거즈 V10을 완성하는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코로나19로 가장 늦게까지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2020시즌, 나지완은 아들 앞에서 예전 영광

을 떠올리는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25일 "어제는 나지완에게 중요한 날이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지완의 아들이 처음 야구장을 찾은 날이다"며 "나지완이 가족들이 온다며 토요일 경기에 꼭 라인업에 넣어달라고 했었다(웃음). 덕아웃 위에 가족이 있었다. 나지완이 2루타도 때리고 홈런도 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나지완은 "팀 승리까지 이끌지 못해 아쉽지만 아들 앞에서 홈런을 쳐서 기뻐했다. 2루타 200개는 모르고 있었다"며 "다른 욕심은 없다. 건강하게 야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남은 경기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A는 25일 경기에서는 최형우의 선제 솔로포와 한승택의 만루포 등을 묶어 삼성을 상대로 10-1 대승을 기록했다.
선발 임기영은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개인 최다인 9승에 성공했다.
임기영은 "1회 삼자범퇴로 시작하면서 잘 풀리겠다고 생각했다. 구자욱에게 홈런 맞을 때 실투 빼고는 크게 안 좋은 부분은 없었다"며 "(한)승택이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리드도 편하고 좋았다. 들어가기 전부터 웃으면서 한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만루홈런을 쳐줬다. 코치님께서도 기영이 승리하게 해주자고 해주시고 선배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동료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는 1580명이 입장해 '가을야구'를 즐겼다. /김여울 기자 wool@

"그냥은 못 보내" 제10회 무등기전국사회인야구대회 광일리그 16강 1차전 담양 로얄즈와 레이니즘경기. 1회말 내야방볼로 진루한 레이니즘의 김세준이 노건우 타석때 3루로루타다 수비수와 충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